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자료문의 : 에너지자원정책과 이호준 과장(2110-4868), 임국현 사무관(5411)	

「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 위원회」(위원장 윤기봉 교수) 출범키로

– 원전, 전력설비 등 5개 분야 대상, 4월부터 3개월간 조사후 7월에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 –

□ 지식경제부는 3.21(수) 오전 조석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「에너지 위기대응TF 회의」를 개최하여,

* 주요 참석자 : 제2차관(주재), 에너지자원실·국장, 에너지원별 담당과장, 한수원, 한전, 발전5사,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, 중앙대 윤기봉 교수 등 에너지 안전관련 전문가 등 40여명

○ 「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」(위원장 : 중앙대 윤기봉 교수)를 구성하여 ①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②에너지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

□ 민관합동위원회는 3월말까지 출범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, 업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,

○ 분야별 5개 현장 점검반(전력, 석유비축·LNG생산시설, 원전시설, 광산시설, 민간 가스시설)과 제도 개선반(제도개선, 중장기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개선계획 수립)으로 운영할 계획임

□ 조 차관은 '특별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전에 관한 인식전환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더욱 중요'하다고 언급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,

○ 노후설비의 계속운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마련, 안전진단 평가기관의 객관성 담보방안, 안전사고 조사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점검제도 마련,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기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(비용·인력 등)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폭넓게 다뤄줄 것을 강하게 당부

□ 지경부는 금일 회의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과 안전점검계획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여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. 끝.